

## 목포신항 사용료 50% 감면 유지

市·상의 등 발빠른 대응 연장 이끌어내

물동량 이탈 막고 연간 17억 비용 절감

내년 1월 1일부터 목포신항 항만시설 사용료의 감면을 폐지하기로 했던 정부 계획이 수정돼 50% 감면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목포시는 목포상공회의소, 항만물류협회 등과 함께 발빠르게 대응한 결과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전면 폐지'에서 '일정부분 감면 혜택 지원(50%)'이라는 수정안을 이끌어 냈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계획대로 감면제도가 폐지된다면 목포신항을 이용하는 선사, 화주 등에게 연간 17억여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 항로 축소 및 물동량 이탈 등으로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가까스로 면제제도가 유지되면서 목포신항을 이용하는 선사 등이 연간 약 11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당초 국가 재정 건전화와 다른 항만과의 형평성을 들어 목포신항 부두에 입·출항하는 외항선에 제공해 오던 선박 입·출항료, 정박료 등 감면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목포상공회의소(회장 주영순)와 항만 관계자들은 항만시설 사용료의 감면 혜택 확장을 철회하고 협행 대로 유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목포시는 신항 활성화를 위해 포트 세일, 컨테이너 화물과 항로 개설 인

센티브로 선사와 화주에게 18억원을 지원했다. 2만t급 부두 4개 선석이 운영 중인 신항은 올해 3만TEU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등 동북아 물류 거점 항만으로 도약의 발판을 다지고 있다.

정종득 목포시장은 "목포신항은 신생 항만으로 타 항만 운영 여건과 비교하면 매우 열악해 화물 유치에 어려움이 많고 서남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항만시설 사용료의 감면은 서남권 지역 경제 발전과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절실히 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지난 2004년 개장한 목포신항은 자동차를 선적하는 국가 부두 1개 선석과 컨테이너와 조선 차재 선적 등 민자 부두 3개 선석을 갖췄다. 항만시설 사용료는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100% 감면 받아오다 올해 들어서 75%로 감축했다.

/서부취재본부=임영준·이상선 기자 lyc@



귀가 서두르는 노인, 화합하는 새해 되기를...

강진군 신전면 사초리 해변에서 한 주민이 자연산 꿀을 채취한 후 귀가하고 있다. 2011년 신묘년(辛卯年) 새해는 평안하고 화합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본다.

/서부취재본부=남철희 기자 choul@

## 곡성 '건강팔팔마을 만들기' 호응

사업 평가회... "체계적 프로그램 만들 것"

국내 대표적인 장수(長壽) 마을인 곡성군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호응을 얻고 있다.

곡성군은 최근 군민회관 소강당에서 33개 마을 120여명(주민 대표와 건강지킴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팔팔마을 만들기 사업' 평가회를 개최했다.

'건강팔팔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 주민과 공공기관이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속적으로 건강 정보를 교환하고 지도해 농촌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노력의 기반이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올해 사업 성과 분석과 우수 마을 사례 발표, 동아리(팔구회·건강동아리) 회장의 동아리 활동 보고 등으로 응행됐다.

곡인군은 전북 순창군·담양·구례 등과 함께 지난 2002년부터 장수벨트 행정 협의회를 구성해 지역 실태 조사와 선진 해외 장수지역 공동 시찰 등 장수벨트 지역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전국 최초 장수지역 선정의 가치를 알리고 세계 장수촌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구·곡·순·담 100년 삶'을 열고 있다.

허남석 군수는 "주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해 '건강한 곡성'을 만들어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2년 서울대 체력 과학 노학 연구소는 역학 조사를 통해 10만 명당 100세 이상이 20명을 넘고, 장수 비율이 60%를 넘는 것으로 이들 지역을 끓어 '장수벨트'로 이름붙였다.

/동부취재본부=김경중 기자 kjkim@

## 시들지 않는 꽃·1인용 소포장 쌀...

농업 청년 창업 지원 성과... 농가 소득 창출 기여

청년 실업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추진하는 농촌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벤처형 청년 사업가 양성 사업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29일 전남도 농업 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 거주하는 만 20세이상 ~39세이하 농업부문 창업 회의원과 사업 업그레이드를 원하는 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2010 농업 청년 창업 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 지난 9월 최종적으로 11개 사업체를 선발했다.

이들 사업체에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전문 창업 과정 교육과 함께 사업별 담당 멘토를 지정, 컨설팅 등 꾸준한 지원 활동을 전개, 3개월여 만에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불었다.

◇경진 '시들지 않는 꽃'= '프리 쟈버드 플라워'(Preserved Flower)로 불리는 '시들지 않는 꽃'은 기존의 꽃과 절화 소재를 융액에 의한 탈색과 착색 과정을 거쳐 7대 이상

의 부가 가치를 높이는 상품으로 변모했다.

사업자는 절화 소재의 과잉 생산으로 인한 출하 단가가 하락하고 있어 이를 가공해 판매하면 부가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시들지 않는 꽃'은 국내 시장에서는 초기 단계이지만 일본과 유럽 등지에서는 대중적인 상품이어서 앞으로 안정적인 농가 소득 향상을 둘러 수출 유망 품목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성 '1인용 소포장 쌀'= 한번에 많은 분량의 밥을 할 필요가 없는 맞벌이 부부와 싱글족, 학부족 등을 위한 100g짜리 맞춤형 미니 쌀이다. 특히 기능성 쌀은 유기농 유색미를 혼합해 구성해 입맛과 기호에 맞게 밥을 해먹을 수 있도록 했다. 한번 조리후 냉동식 키친 즉석 밥과 달리 즉석에서 갓 지은 쌀을 바로 맛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진 '시들지 않는 꽃'= '프리 쟎버드 플라워'(Preserved Flower)로 불리는 '시들지 않는 꽃'은 기존의 꽃과 절화 소재를 융액에 의한 탈색과 착색 과정을 거쳐 7대 이상

새로운 식문화 트렌드를 창출해 침체돼 있는 쌀 소비 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선정된 농업 청년 창업자들은 개인 또는 공동 소그룹을 통한 차별화된 홍보와 마케팅을 강화, 판로 확보에 나서고 있다.

장성에서 장부산업에 뛰어든 한 창업자들은 청년 사업을 하는 부모 밑에서 기술을 배워 독립한 후 인터넷 판매와 함께 블로그 활동을 통해 우수 회원을 확보하고 공장내에 고객 체험 카페를 개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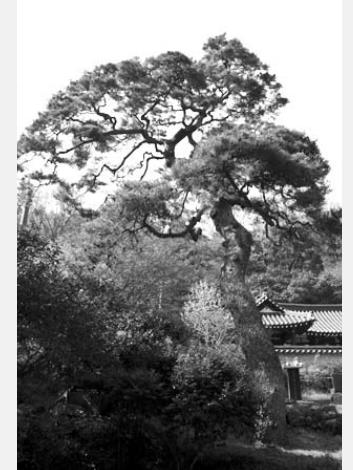
제품 유통은 ▲온라인 50% ▲오프라인 10% ▲대형 유통업체 40%를 차지한다.

전남도 농업 기술원 조동호 농업 경영 연구 실장(식품 연구소 연구사)은 "내년에는 사업장별로 성공 요인과 경영성과 분석 등 성과를 분석, 다른 농가들에게 농촌 창업 벤치 마킹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기동 기자 song@

큰 나무를 밭굴해 도 기념물로 지정하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김용기 기자 kykim@



## 장흥 장천재 '태고송' 도기념물 지정

수령 500여년 추정... 문화재·학술적 가치 높아

전남도는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 장천재(도 유형문화재 제72호) 앞에 위치한 소나무 '태고송'(太古松)을 도 기념물(제245호)로 지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태고송'은 나무 높이 19~21m· 흉고 직경 90~100cm 규모로, 수령은 반세 위정명(1589~1640)의 시에 나무난 것으로 미뤄 500여년으로 추정된다.

전남도는 독립으로 생태가 양호해 경관적 가치가 뛰어나 아니라 문화재적·학술적 가치가 충분해 도 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앞으로 군 보호 수료로 지정된 나무 가운데 문화재적·민속적·학술적 가치가



## 목포 하당라이온스, 장애인 복지관에 위로금 전달

목포 하당라이온스(회장 박영길)는 최근 목포장애인복지관에 위로금을 전달하고 무료급식을 실시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 기자 dss6116@kwangju.co.kr

## 신안군 보복성 인사 후폭풍

시민단체 항의 시위... 군의원도 비난

신안군이 지난 22일 단행한 대규모 인사 '후폭풍'이 거세다.

신안군 공무원 노조가 업무 능력과 연공 서열을 무시한 채 군수 측근들을 주요 보직에 배치하는 등 '선거 보복성 인사'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시민 사회 단체에서는 1인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 증명환자 직원 부모가 군수를 찾아가 항의를 하고, 신안군 공무원 노조 계시관에도 군수를 노골적으로 비방하는 글들이 빚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신안군의회 박삼성(비금·도초·흑

산) 의원은 제200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 앞서 5분 발언을 통해 "세무 6급을 농수산당에, 농업 6급을 민원봉사당에 교차 발령하는 등 전문직 봉사를 무시해 전문성이 훼손되고, 정의의 안정을 헤우면서 해야하는데도 부부 공무원들을 갈라놓아 가정이 해체직전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치보복성 시비의 한가운데 인사 문제가 소용돌이치고 있다면 의구심을 펼치지 못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부취재본부=조원남 기자 wncho@

## 대인동 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 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 지역 상가 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전망입니다.

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려 칸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알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 전문 소개업체인 광주에서 오랜 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 223-1772 휴 011-602-2532

(광주은행 신답점 앞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

## 태영부동산 재테크컨설팅

호남경매신문지사,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 신고까지 (20년 경력)

다기구주택 서구 금호동 3층 다기구건물  
대지65평 건평114평 2억 4천만

단독 주택 • 남구 월산동 2층 주택을 수리 리  
대지67평 건평55평 8천 2백만  
• 서구 쌍촌동 2층 주택 대지56평  
건물66평 9천 9백만

나 대 지 • 대구 1500평(6차선 도로집) 700평  
• 자연녹지 : 700평 ▶ 일반공업지역 : 800평  
•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과 수 원 • 곡성군 견면 토지1590평  
유실수300여주 6천 2백만  
• 광산구 비아동 토지265평 건물  
360평 5억 8천만  
• 서구 세하동 토지 196평  
건물50평 1억 9천만

\* 금구합 서구 일대 세차장 매수원합  
▶ 이외 상담불가, 전망不利보유, 소액 투자상당

광주 서구 마륵동 도시철도공사 부근  
T. 010-4911-4989 FAX. 062-376-6611

## 신진공인증개사 (임대전문)

대불산단 공장 매매(임대 가능)

▶ 공장용지 : 15,000평  
▶ 건 물 : 900평  
▶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장성동화 공장 매매(임대 가능)

▶ 공장용지 : 2400평(계획 관리)  
▶ 건 물 : 580평(동력 200kW)  
▶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남구 송하동 토지매매

▶ 대 지 : 1500평(6차선 도로집) 700평  
▶ 자연녹지 : 700평 ▶ 일반공업지역 : 800평  
▶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복구 동립동 토지매매

▶ 대 지 : ① 500평 ② 1200평  
▶ 준주거지역(동립 2지구 건너편)  
▶ 건 물 : ① 상가 30평, 창고 80평  
② 상가 200평 공장 200평  
▶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광산구 월전동 토지매매

▶ 대 지 : 2000평(성산 녹지지역)  
▶ 6천선 도로변(공장, 물류창고, 차고지 등)  
▶ 매매가격 : 17억원 (건물 600평 포함)

문의: 016-644-4265, FAX. 523-8558

##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